

#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 선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Study on Japanese Traditional Aesthetic Sense in Modern Fashion

Sun-Hee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8. 6. 6. 접수; 2008. 8. 25. 수정; 2008. 9. 11. 채택)

### Abstract

Today, each country's cultural communications are carried briskly and Japan already showed a new trend of world fashion by accepting its own design with aesthetic sense to western Europe in 1970s and built the new area of Japanese fashion. This special traditional aesthetic sense, formed by social, cultural, geographic and religious conditions, is roughly divided into decorated and undecorated beauty; decorated one means splenderness, coquetry, exaggeration and was represented ornamental modification of nature object in dress pattern as ornamental expression means; undecorated one, based on Zen-thought, means simplicity, purity, ugliness and Japan gave rise to the new beauty by receiving and adapting continental culture to its culture openly and creating and developing its own beau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esthetic sense shown in Japanese traditional dress and understand how traditional beauty is used and applied to modern fashion and analyze the diversity of Japanese traditional aesthetic sense shown in modern fashion. For material analysis, total 220 were collected of photograph related to formative element existence according to aesthetic sense shown in Japanese traditional fashion design using literature research and visual data. The existences of Japanese image among them were confirmed by clothing and fashion department majors so that 7 pieces of which were selected as final analysis object.

Likewise, the result suggests that Japanese traditional aesthetic sense creates global design based on folk element-used identity as well as new beauty by adapting continental culture to its culture openly and producing and developing its own creative beauty.

**Key Words:** Formative(조형성), Simplicity(간결미), Purity(순수미), Ugliness(추의 미), Motif(문양)

---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Lee

Tel. +82-17-717-0577, Fax. +82-41-850-8301

E-mail : shfiber@hanmail.net

## I. 서론

전통미의식은 사회, 문화, 지리, 종교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어지는데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일본 고유의 미의식이 담긴 디자인을 서구 유럽에 소개하여 세계 패션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현대 패션에 일본 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일본풍의 조형적 요소들이 현대패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 디자이너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형적 태도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 아니라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는 현대 디자이너들에게도 심오하게 다루어지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세계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일본풍에 대한 학술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中谷眞三代·鏑木伸子は 기모노의 착장 이미지를 연구하였고, 이상례는 몽골,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해 연구하여 동양적 복식 디자인 이미지를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吉岡徹은 기모노에 있어 줄무늬 이미지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김희정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이미지 연구에서, 김미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복식과 일본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전통문화를 기저로 한 복식의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일본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일본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오리엔탈리즘 복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의 전통복식과 직물에 표현된 전통 미의식에 따른 조형요소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을 일본으로 한정하였으며, 일본 디자이너와 서구 디자이너의 작품을 함께 제시하면서 현대 패션에서의 일본 전통 미의식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전통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 미의식이 현대패션에 어떻게 활용·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전통 미의식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은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전문서적,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였고 실증적 내용분석은 2000년 이후 출판된 *Vogue Korea*, *Fashion News*, *Gap Press*, *Mode et Mode*, *Vogue Paris*, 등의 패션 정보지,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적 이미지 사진을 총 220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의류학 및 패션 관련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일본적 전통 미의식에 따른 조형요소 유무에 대한 확인을 거쳐 7점을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본 전통 미의식의 특징

일본의 문화는 태평양의 해양문화와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방계통의 문화, 한국, 중국, 대륙계통의 문화, 그리고 유럽등지의 여러 문화가 혼합되면서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일본 문화는 보편성, 세계성 보다는 오히려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불교라는 종교적 믿음에 기인된 소박, 단순, 절제, 정갈 등의 심성이 일본 사무라이에게 윤리로서 수용되어 종교, 윤리의 정신적 맥락이라는 유대성을 가지며 나타난 오랜 미의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박함과 적정, 차분함과 유한(幽閑)한 정취 등은 선(禪)적인 아이디어로1) 인식될 만큼 종교, 철학으로서 일본문화에 응축되어 온 선(禪)의 정신은 일본인의 실용적인 문화와 조화되어 일본의 미의식으로서 자리 잡았다. 무라타슈코(村田珠光)에 의해 무로마치(室町)시대 중기까지 귀족의 취미였던 다도 역시 차(茶)가 선(禪, zen)정신에 입각한 간소(簡素)한 아름다움을 내포한다. 이렇듯 선(禪)은 일본의 미(美)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징으로 간결미와 단순미를 들 수 있다. 선(禪)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불교의 한 종파로서 산스크리트어의 드호야나(Dhyana)라는 말의 음역(音譯)으로, 선나(禪那)라고 썼던 것을 후에 나(那)가 생략되고 선(禪)이라고만 쓰이게 된 것이다. 그 말은 '정려(靜慮)', '자기제어'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선(禪)은 정신의 자기집중, 내면의 침잠, 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2) 선(禪)은 하나의 철

학, 종교라는 의미를 함축하면서 문학, 서예, 드라마, 그림, 건축, 다도(茶道)를 통해 넓은 범위의 장식예술 형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으로 본질을 체험하는 데에 목적을 둔 불교철학의 바탕아래, 정신적 함축성을 내포하면서 일본의 미의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13세기 초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에이세이(榮西)와 도겐(道元)이라고 하는 두명의 뛰어난 일본 구도자가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전통, 문명의 합세에 의해 만들어진 선(禪)을 일본에 가져온 이후 선(禪)은 일본에서 집대성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문화를 창조했다.<sup>3)</sup>

일본의 가부키사(歌舞伎史) 연구가인 핫토리 유키오((服部幸雄)는 ‘꾸밈’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인의 미의식을 꾸밈의 미의식과 반꾸밈의 미의식으로 나누었다.

장식적인 꾸밈의 미의식은 헤이안(平安, 794~1195)시대의 유태주의적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본의 저택과 정원, 복장, 집기, 회화로부터 완구에 이르는 온갖 생활용구를 금, 은이나 다양한 색채로 공들여 꾸민 것을 의미한 것이다. 반면 꾸미지 않는 미는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시킨 좋은 예로써 현대패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19세기 유럽에 유입되었던 일본예술은 당시의 예술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에서 나타나게 되며, 인상주의 상징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중요한 모티프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은 패션에 있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디자이너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형적 태도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 아니라,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는 현대 디자이너들에게도 심오하게 다루어지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일본의 전통 미의식은 사회, 문화, 지리, 종교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꾸밈의 미와 꾸미지 않는 미로 대별되며, 모두 인위적인 장식성을 추구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꾸밈의 미는 장식적 표현의 수단으로 복식에서는 문양이 자연물의 장식적인 변형으로 나타났고, 꾸미지 않는 미는 선(禪)사상에 기인한 미의식으로 간결미, 단순미, 추의 미로 현대패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 예술의 영향은 일반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술 및 패션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미의식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전통 복식에 내재한 미의식의 특성을 고찰하고 대표하는 미의식을 세분화하여 현대 패션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꾸밈의 미와 꾸미지 않는 미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꾸밈의 미

인간에게 ‘꾸미는 것’이란 삶의 증거이자 기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예술이야말로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sup>4)</sup> 일본의 꾸밈의 미는 유태주의와 더불어 장식미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풍류, 사치스러움, 허세, 본뜨기, 멋 등의 용어로 그 특징을 대변할 수 있다.

일본의 장식 미의 추구는 고대 야요이(彌生, B.C 2세기~A.D 4세기)시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 시기의 토기 문양에 보이는 명쾌한 기하학성이나 섬세한 미감은 장식미술의 커다란 특성으로 후대에 계승되어진다. 이후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입된 장대한 불교 미술, 동물, 식물, 인물의 여러 가지 모티프, 자연물의 장식적 변형 그리고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의 유태주의적 생활태도는 일본의 장식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일본인의 정신적 표징물이었던 일본의 장식 모티프에는 신앙과 축복, 액막의 의미가 널리 포함되어 있으며 상징을 통한 꾸밈의 기호로 표현되었다.<sup>5)</sup> 즉, 일본의 상징적 표현은 정신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꾸밈의 장식성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가부키 의상인 우치카케(打掛)는 꾸밈의 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로써 학, 거북, 보물선 모티프가 자수와 아플리케를 통해 왕성한 생명력과 장식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꾸밈의 미의식은 일본 자국의 문화에 대륙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식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서양인들의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 복식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였다. 일본 전통문양은 오리엔탈리즘의 복식이나 에스닉(Ethnic) 패션에서 빈번히 응용되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양이나 사물이 모티프로 된 것은 프린트나 자수를 통해 현대패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전통 문양은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현대인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어서 현대 패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응용되는 주요한 모티프로써 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동물과 식물, 사물로서의 부채 그리고 문자 등이 쓰이기도 하며 회화가 의복 전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현대 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에 있어서는 일본의 꾸밈의 미의식으로,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 오비(帯)의 응용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서구 디자이너에 의해 자주 활용되는 흥미로운 모티프는 기모노 위에 두른 오비(帯)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보여지는 장식성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

꾸밈의 미의적인 호색(好色), 감각적, 유미적 측면을 내포한 고대의 미적 이념인 ‘미야비(雅)’는 헤이안 시대의 ‘우아’라는 미적 이념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현란하고 오염한 염려의 미학으로 형성되어 현대 일본패션의 주요 요소로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꾸밈 문화의 미의식에는 우아한, 화려한, 품위 있는, 오염한 등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장식적 요소로서 복식 문양 및 염색에 화려하게 나타난다.<sup>6)</sup>

한편 ‘장식’을 뜻하는 일본어의 ‘꾸미다’라는 말의 의미는 막부말엽과 메이지시대에 영어의 데코레이션(Decoration)과 오너먼트(Ornament)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의 옛말을 살린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꾸밈 문화의 의미는 화려하고 장식과 연관되며, 이에는 관능적인 오염성이 내재되어 있어 현대 패션에 표현된 꾸밈 미학의 유형을 화려미와 교태미, 과장미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화려미(花麗美)

일본 전통문양은 현대 패션의 오리엔탈리즘

에서 자주 응용되는 주요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예술의 장식 모티프로는 동·식물, 자연 풍경, 생활도구, 문자 등이 상징성과 결합되어 기호로서 의미를 지님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적 표징물로 기모노의 다양한 방식과 섬세하고 화려한 색상과 함께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전통문양의 특징은 외형적 화려함으로 장식적 특징을 이루는데, 이러한 전통적 장식요소를 현대패션에 응용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하나에 모리(Hanae Mori), 간사이 야마모토(Kansai Yamamoto), 다케다 겐조(Takeda Kenzo)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하나에 모리는 에도시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색상, 문양 등을 현대패션에 응용한 독특한 작품세계로 정평이 나있으며, 간결한 실루엣에 비대칭 네크라인으로 처리하고 나비, 꽃, 구름 등의 커다란 모티프로 일본의 전통적인 장식을 현대화한 작품과, 일본의 전통 노(能)극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역시 꽃, 식물, 나비문양을 입체적으로 조화시켜 일본의 장식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일본의 화려한 꽃모양 프린트를 이용한 작품으로 프레타포르테(Preta porter)에서 명성을 얻은 다케다 겐조는 포클로어(Folklore) 룩과 에스닉 룩으로 정평이 나있다. 패션에 인생과 자국의 긍정적 모습을 담으려 했던 다케다 겐조의 작품의 특징은 다양한 꽃무늬의 모티프와 다양한 원색의 배색으로 안티모드적인 경향이 짙은 점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바로크(Baroque)적인 장식적 감각, 단순성, 절제된 형태미로 집약 될 수 있으며 오리엔탈을 테마로한 작품에서 선의 미학적 요소와 화려한 표면 장식적 요소를 절충적으로 응용한 일본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1942)역시 일본적인 호염을 이용한 작은 문양과 꽃문양이 조화된 프린트직물을 겹치기 효과로 구성하여 패턴(pattern)의 장식적 재미와 함께 일본풍의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sup>7)</sup> 또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1938)는 꾸밈과 반꾸밈의 일본적 미의식을 다양하게 패션에 연출하는 등 일본 전통기법을 패션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하게 모양을 이룬 섬유조각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세계는 기존의 서구의 장인적

봉제방법에 의한 정형화된 구성미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서구 패션에서 안티쿠튀르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동방의 충격’으로 서구패션에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 하오리(羽織), 하카마(袴)를 현대적으로 루즈하게 변형시켜 화려적인 화려한 문양의 장식적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전통복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장식으로서 색을 중첩시켜서 나타내는 배색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전통 습색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프라즘 콜라주’라는 타이틀로 유머적이고 재미와 감성을 자아내는 유희적 작품을 구성하였다.<sup>8)</sup> <그림 1>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2005 F/W Couture 에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용되어지는 꽃을 장식적으로 사용하며 속이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속옷과의 대비를 통해 습색미를 일본 전통복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여 자기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실루엣과 변형된 형태로써 한층 더 화려함과 우아함을 부각 시켰으며, 시대적인 양상에 맞추어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방법으로 패션을 하나의 문화로써 표현하였다.



<그림 1> Christian Dior  
(05 F/W, www.  
firstview.com)

## 2) 교태미(嬌態美)

교태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아양 부리는 자태이다. 이는 꾸밈문화에 내재한 염(艷)<sup>9)</sup>의 미의식이 화려함과 연결된 관능미, 감각미를 표현하는 윤기 나는 색채감이 넘치는 연애적 정서와 연관된 교태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서양적

관능미라는 용어보다 교태미로 선택한 이유는 일본인 특유의 수줍고 절제되면서 내면의 적극성을 취하는 은근미의 교묘한 이중성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현대 여성패션의 요염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특유의 ‘가와이이(可愛い)’ 경향으로 일본인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미의식의 하나이다. 서양식 개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미태(媚態)와는 거리가 있으며 ‘귀여우면서 사랑스럽고 멋있으며 산뜻하다’고 하는 일본 십대들의 심상을 표현하는 모든 의미가 혼합된 수식어로서 억제와 절도가 숨겨져 있다. 즉 어렵듯하게 애뜻한 감성으로 관능성의 상징적 의미가 내재된 것이 일본적 감성의 관능미로 인지된다. 이는 일본 예술의 특성을 인상성, 장식성, 상징성, 감상성의 4요소로 지적한 쓰지노부오(辻進雄)의 견해에서도 공감되며 그 특징은 감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애뜻한 정감’의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에 대응하는 정감과 정취성의 관능미라 할 수 있다. 트렌드에 따라 패션 컨셉을 결정하는 서구 패션계와는 달리 일본의 10대 패션산업은 전적으로 도쿄 소녀들이 ‘가와이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sup>10)</sup> 이러한 ‘가와이이’의 이미지는 시대유행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창출되지만 그 밑바닥에 스며있는 기본적인 미의식의 근원은 같다. 현재 도쿄 소녀들이 ‘가와이이’로 정의하는 것은 주름진 핑크색 셔츠처럼 귀여울 수도 있고, 비닐 미니스커트처럼 화려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30, 40대 중년부인들을 겨냥한 ‘오바짱(小母) 가와이이 패션’이라는 말도 있다. 중년의 연령층임에도 성숙한 여성미보다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있는 그러면서도 수줍은 듯 하고 이성을 의식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내재된 그러한 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가와이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태미의 용어상 의미는 시각적으로 농염한 관능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양적 관능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태미’로서 인지된 ‘가와이이’한 일본 여성패션의 디자인 특징은 여성적인 디테일 장식과 변형, 꽃문양이다. 디자인의 세부사양을 러플이나 리본 장식으로 변형시키고 비데칭 등을 통해 장식하여 소녀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다채로운 꽃문양이 선호된다.

요지 야마모토의 1997년에 소개된 웨미닌 룩은 목선을 드러내고 비대칭적인 헴 라인에 서령 장식을 하여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리틀 걸 룩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좌우비대칭의 일본 특유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잘라 붙이기, 겹쳐잇기, 찢어 붙이기 등으로 꾸미고 비대칭적 패턴을 대위법구성으로 전개하는 전통 공예기법과 유사한 소재 표면의 변형과 플리즈가공을 통해 독특한 표면장식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크프르트(Frankfurt) 발레단의 춤사위 속의 다양한 인체 동작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이세이 미야케는 무용수의 인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옷의 기능성과 모든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플리즈 가공을 하고 이를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의 기능성을 고려한 커팅 기법으로 구성하여 표면 장식에 의한 독특한 조형미를 통해 일본 특유의 관능적 교태미를 나타내고 있다.<sup>11)</sup> 장식적인 요소로서 색을 중첩시켜 나타내는 습색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 Issey Miyake  
(Making, Thing, p.75.)

### 3) 과장미(課張美)

헤이안시대의 “다케다카시”(長高)는 ‘웅대하다’, ‘위대하다’, ‘기품이 있다’ 는 뜻을 지니면서 조용하고 속 깊은, 유순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이와 같은 격조가 높고 장대한 느낌,<sup>12)</sup> 숭고적 미의식은 모든 예술형식에 거대한 과장미를 낳게 하였다. 또한 무사들의 허세에

대한 과도한 영웅주의적인 의식은 꾸밈 문화에 활기를 띄게 하였고, 헤이안(平安)시대의 귀족들의 장식 의욕은 14세기 모모야마(桃山)시대 무사들의 도(道)로서 지나친 허세로 이어진다. 무사들의 과장된 욕구는 다케다카시(長高)의 미적 이념을 통해 과장된 크기와 과잉 장식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복식에서 확연히 나타난다.<sup>13)</sup> 특히 헤이안시대 후기에 발달한 귀인 계급의 복식 중 형태가 커지고 겹쳐 입는 착장 방식으로 된 것에는 일본의 기후 등 풍토적 환경에 의한 영향도 보인다. 이는 현대 패션에서 일본 패션을 특징짓는 빅 룩(Big Look)의 패션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전통복식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상의 과장은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70년대 유럽 패션계에 빅 룩, 레이어드 룩으로 소개되었고, 이의 장식적 특성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션 트렌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과장미는 사치스러움, 허세, 과잉함, 본뜨기, 멋<sup>14)</sup>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예술의 장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형태의 변형에 의한 왜곡, 특수 표면효과를 이용한 형태의 과장된 변형도 장식적 측면에서 과장미로 이해하였다.

1974년에 다케다 겐조, 이세이 미야케가 스타적인 존재로 부각되면서 이들에 의한 빅룩과 루즈룩, 레이어드룩의 패션이 주목을 받았다.<sup>15)</sup> 특히 이세이 미야케는 형태의 변형과 왜곡에 의한 ‘꾸밈’ 과 ‘반꾸밈’ 적 유희성을 나타내는 작품 점핑(Jumping)은 다색상의 배열을 통해 신체 일부를 과장적으로 표현하여 지속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형상,<sup>16)</sup> 유희적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일본 전통예술에서 ‘꾸밈’과 ‘유희’가 예술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색종이를 다양하게 조화시키는 종이공예 장식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는 1976년에는 옷이 제2의 피부이자 인체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기능적으로 인체를 감싸는 캡슐형태의 의상구성<sup>17)</sup>을 하여 독점적인 동양스타일 의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작품으로 충격을 주었다. 가부키 의상에서 영감을 딴 8m 원형의 천으로 구성된 화려한 대형 꽃문양으로 장식된 의상을 발표하여 유럽 패션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1970년대 일본디자이너들의 파리진출에 의한 활약으로 일본의 하이 패션계(High Fashion)가 크게 급부상하였다. 이들의 패션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체형의 서구 패션과는 전혀 다른 비구축적인 조형미의 비록, 루즈룩, 레이어드룩 등으로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션이 되었다. 과장미는 현대 패션에서 일본 패션을 특징짓는 빅 룩(Big Look)의 패션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전통복식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의 과장은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되어 70년대 유럽 패션계에 비록·레이어드룩으로 소개되었고 <그림 3>의 직선적인 실루엣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드레이프의 표현 역시 일본 복식의 이미지로서 크리스찬 디올의 롱코트는 기모노 형태의 과장된 크기로써 기모노의 깃, 소매의 크기와 길이의 풍성함을 비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식적 특성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션 트렌드가 되었다.



<그림 3> Christian Dior  
(05 F/W, www.firstview.com)

### 3. 꾸미지 않는 미

꾸미지 않는 미는 일본의 선사상(禪思想)에 기인한 것으로, 다도(茶道)와 함께 다실(茶室)에서 보여지는 생활공간의 불필요한 잡품을 모두 배제하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요소만을 남겨둔다. 이러한 간소화(簡素化)는 반 꾸밈의 상징성을 볼 수 있는데, 소박하고 간결한 형태의 다실(茶室)은 ‘빈집’ 또는 ‘비대칭적인 집’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며 아무런 장식이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또한 완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고의로 미완성의 부분을 남겨놓고 불완전을 숭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sup>18)</sup> 이것은 일본 특유의 미의식의 표현으로써 불완전의 미, 결여의 미를 낳게 되었다. 꾸미지 않는 미는 종교적 공(空)과 통하는 것으로 간결미(Simplicity), 순수미(Purity), 추의 미(Ugliness)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이라 할 수 있는 꾸미지 않는 미는 일본문화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항한 내적 아름다움의 선호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미적 감각은 섬세한 아름다움, 자연연의 애수, 고요의 정서, 옛것에의 정취의 개념으로 미의식과 감정의 조화를 제시한다.<sup>19)</sup>

19세기 메이지(明治)시대의 선각자인 미술평론가 오카쿠라덴신(岡倉天心, 1862~1913)은 일본문화의 특성을 불완전성에서 찾고 부족한 것은 상상에 의해 보충하고자 하는 특수한 미의식이라 하였다. 또한 히사마쓰신이치(久松眞一, 1890~1980)는 일본인의 전통 미의식을 불균형의 미라 하여 불완전한 미로써, 완전한 것을 자제하는 불투명한, 수수한, 소박한, 모자라는 듯한 아름다움이라 하였다.

결국 이러한 꾸미지 않는 미의식은 간결의 미, 무정형의 미, 불완전의 미, 추(醜)의 미의식으로 이어져 건축, 공예, 회화 그리고 복식 등의 현대미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꾸미지 않는 미의식의 표현으로 고의로 구멍 내기, 찢기, 덧붙이기, 색상에서 어두운 색의 사용, 거칠고 투박한 질감의 표현을 꼽을 수 있다. 꾸미지 않는 미의식의 유형을 선(禪, Zen)사상에 기인한 미의식인 간결미, 순수미, 추의 미로 현대패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자국의 문화에 대륙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미로 창조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미를 탄생시켰다.

#### 1) 간결미(Simplicity)

일본문화에서는 간결한 아름다움의 선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라는 종교적 믿음에 기인된 소박, 단순, 절제, 정갈 등이 일본문화에 응축되어 나타난 선(禪)의 정신은 일본인의 실



<그림 4> Issey Miyake  
(Making Tings, p. 85)



<그림 5> 반드 보스트(Vande Vorst)  
(02S/S, FashionNews, vol. 74.p.105)

용적인 문화와 조화되어 일본의 미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는 디자인 자체를 단순화 하거나,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등 인간의 내부적 정신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형적 단순화를 지향하여 등장한 미니멀리즘과 조형성이 유사하다. 구조선을 배제하고 재단과 봉제의 절제를 통한 자연스런 소재의 특성의 부각과 함께 거추장스러움을 털어낸 간결함을 추구하며, 내추럴한 표현을 위해 흑백의 무채색과 함께 밤색, 카키색, 겨자색, 보라색 등과 같은 차분하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색의 사용, 순수한 백색의 착용은 선(禪)정신에서의 심플한 금욕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로써 최소의 표현과 색채의 절제를 통한 간결한 미가 구현된다.<sup>20)</sup>

간결함과 단순함을 미학으로 형식면에서 미니멀리즘(Minimalism)적 요소를 보이고 있으나 좀 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따뜻한 느낌의 표현으로 모더니즘(Modernism)적인 미니멀리즘과는 차별되어 나타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간결미의 추구는 디자인 자체를 단순화하거나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 하는 등 조형적 단순화를 지향함에 따라 등장한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조형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표현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해오던 디자이너들도 동양정신을 수용한 간결미를 수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sup>22)</sup>

<그림 4>에서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은 선(禪,

zen)적인 간결미를 추구하여 어깨부분의 장식만이 유일한 장식으로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옷에 대해 보호나 장식의 의미가 아닌 인간 그리고 자연의 일부라는 확실한 표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옷이 몸을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결국 옷과 몸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최대한 재단과 바느질을 줄이는 것으로 몸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세이 미야케의 옷은 인체와 옷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몸의 움직임에 따라 접힘과 전통 수공예적인 종이접기를 응용한 주름으로 공간은 유동적이고 추상적이 되었으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재창조되었다.

<그림 5>의 반드 보스트(Vande Vorst)는 일본의 기모노를 응용하여 오비(帶)를 가죽 소재로 된 벨트 형태로 하여 간결미를 구조선의 배제와 재단과 봉제의 절제, 자연스러운 무채색과 자연색의 활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순수미(Purity)

일본인의 미의식(美意識)에서 일반적으로 규범(規範)으로 삼는 것이 자연미(自然美)이며, 생활 속에서의 미의식의 작용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체(一體)가 되어 산다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삼게 하였다.

일본의 순수 미의식은 자연의 정취와 자연미를 중요시하는 경향과 관련되어진다. 여기에서 자연의 풍경 속에서 현저하게 기이(奇異)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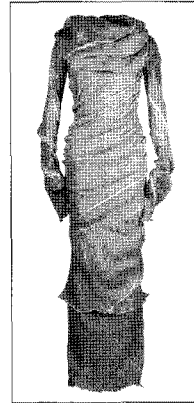


보여지는 무규칙성(無規則性)<sup>23)</sup>을 통한 비합리성(非合理性)과 자연을 통해 터득되는 우연성(偶然性)의 인상(印象), 무의식(無意識)등을 내포하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미의식의 태동을 볼 수 있다. 이는 명상, 자연스러움 등을 기저로 하는 선(禪)의 미의식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순수미는 깨달음을 위한 마음상태를 추구하는 정신에서의 순수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미의식은 몸을 유연한 라인으로 전체 외관을 강조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는 순수주의이며, 또한 내면적 순수를 추구하여 형식을 초월한 무형식성으로 표출된다.

현대패션에서 보여지는 드레이핑(draping)과 라인(line)을 다시 해석한 풍성한 주름은 고대의 것에서 역사적인 동양과 서양의 복장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쯔므 데 가르송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세밀하게 의복구조를 교정하여 미니멀리즘을 재해석함과 동시에 구조적 라인의 초월을 통해 순수의 미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험적인 라인(line)과 실용적인 재질(texture)의 사용은 현대패션에 있어 혁명적인 형태의 재창조에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선(禪)열풍에 의한 순수성으로의 방향은 신체의 비례를 다시금 디자인하게 하였다. 이는 선의 자연 친화성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자연과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는 선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것이다. 순수미는 자연적 재질감을 그대로 간직한 천연소재의 사용을 선호하며,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색상과 자연에 귀의하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6>의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세이 미야케는 자연소재와 자연적인 색조를 많이 이용하였고, 에도시대 ‘쥬니히도에(十二單)’의 ‘가사네이로매(襲色目)’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현대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마직물을 사용한 자연적인 재질감이 그대로 보이면서 형태보다 소재가 우선시 되는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본디자이너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징이다. 이는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텍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자연미를 중시하고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이것을 하나의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 면, 마, 모,

등의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욱 친밀감을 주었으며, 새의 날개처럼 얇고 가벼운 소재를 이용하여 래핑(Laping), 폴딩(Polding), 레이어링(Layering)하는 방법으로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Issey Miyake  
(Making, Thing, p.123.)

### 3) 추(醜)의 미(Ugliness)

추의 미는 일본의 장식미술전반에 걸쳐 표현되고 있는 불규칙적이고 불완전한 비대칭적 표현과 더불어 일본 고전문학사에 있어 미의식의 한 패턴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세기 메이지시대의 선각자인 미술평론가오카쿠라텐신((岡倉天心, 1862-1913)은 일본문화의 특색을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것은 공상에 의해 보충하고자 하는 특수한 미의식이라고 지적하며 그림도 공예(工藝)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찌그러져 있는 재미있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4)</sup>

일본의 미(美)는 근원적으로 오직 감정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이다. 대칭이나 비례나 기하학(幾何學)이나 미를 합리적인 원리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일본인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비합리적 사고를 통한 불완전의 미, 결여의 미, 폐허의 미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sup>25)</sup> 이런 일본인의 미의식의 존재성은 선(禪)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완전의 미의식은 그것이 기하학적

인 완결에 이르러 눈앞의 완결성을 깨뜨리고 다시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완성의 부정으로서 미완성 혹은 미완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과 레이 가와쿠보(Rei Kwakubo)는 전형적인 모던 디자이너이지만, 패션 전문가인 헤럴드 코다(Harold Coda)는 풍요로움과 장식요소보다 간결함이 더 없는 미로써 나타나는 그의 디자인에 대해 천년 동안의 오랜 미(美)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1983년 레이 가와쿠보가 발표한 누더기 의상은 현대의 기계가 만들어 내는 완벽성에 대한 거부로써 불규칙한 구멍을 내어 불완전한 형태를 보여 준다.<sup>26)</sup> 레이 가와쿠보는 옷을 일반적으로 좋은 천, 좋은 옷이라고 여기는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지룩, 보로룩, 까마귀족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으며, 불완전의 미를 추구함으로써 80년대 세계무대에 재팬 쇼크(Japan Shock)를 일으켰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의상은 무형태성, 무정형성, 무색채성의 본질에 착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식은 균형의 파괴에 의한 불균형의 완결성과 미완성에 의한 미적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그림 7>의 휴센 클레이안(Hussein Chalayan)은 현대패션에서 좌우 대칭과 울퉁기, 마무리하지 않은 헴라인, 염색되지 않은 무명의 사용, 천을 여러 겹 겹친 스커트 등을 통해 균형파괴의 추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Hussein Chalayan  
(00 F/W, Vogue Paris, p.11)

## IV. 결론

일본의 전통 복식에 내재한 미의식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미의식이 현대패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 반영된 일본 전통 미의식으로는 꾸밈의 미의식과 꾸미지 않는 미의식이 있다. 꾸밈의 미의식으로는 화려미(華麗美), 교태미(嬌態美), 과장미(誇張美) 등으로 화려미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전통복식과 문양, 염색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교태미는 여성적인 디테일 장식과 변형, 꽃문양을 특징으로 하며 러플, 리본장식 등의 다양한 변형과 장식을 통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과장미는 전통복식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의 과장으로 현대 패션에 활용되었다.

꾸미지 않는 미의식으로는 간결미로써 비롯된 현상일 뿐 아니라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는 현대디자이너들에게도 (Simplicity), 순수미(Purity), 추의미(Ugliness) 등을 꼽을 수 있다.

간결미는 구조선의 배제와 재단과 봉제의 절제, 자연스러운 무채색과 자연색의 활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수미는 형태를 초월한 무형식으로 두르기 걸치기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의 미는 비대칭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로 울퉁기, 헴라인 등이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조형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은 민속적인 요소를 활용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디자인을 창출하고, 일본 자국의 문화에 대륙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창적인 미를 창조·발전 시킴으로써 새로운 미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전통적 미의식이 현대 패션에 다양한 조형적 요소로 활용 그 이상의 철학적 견지에서 전통을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수준 높은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디자이너들의 영향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미의식과 철학적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의 창조와 더불어 그들의 전통을 이해하고 수정·보완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패션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상과 같

이 일본의 전통 미의식은 패션에 있어서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 디자이너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형적 태도에 심오하게 다루어지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세계 전통복식의 특성을 표현한 패션상품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패션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西谷計治, 김호귀譯 (1994). *現代와 禪* 서울: 불교시대사, p.235.
- 2) 西谷計治, 김호귀譯 (1994). Op. cit., p.235.
- 3)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 (1995). *禪과 日本文化* 서울: 불광출판부, p.34.
- 4) 쓰지노부오(辻進雄) (1994). *일본 미술이해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p.41.
- 5) 北村哲郎, 이자연 譯 (1999). *日本服飾史* 서울: 경춘사, p.135.
- 6) 쓰지노부오(辻進雄) (1994). Op. cit., p.71.
- 7)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미학. *복식* 54, p.122.
- 8) Kazuko Sato, Raymond Meier (1999). *Issey miyake making things*. Scalo Znrich, pp.55-56.
- 9) 居川正二, 김학현譯 (1995). *일본 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翰林新書, 일본학총서, pp.12-13.
- 10) Internett, CNN com. Showcase, *中央日報*
- 11) Kazuko Sato, Raymond Meier (1999). Op. cit., pp.25-28.
- 12) 居川正二, 김학현譯 (1995). Op. cit., pp.95-108.
- 13) 쓰지노부오(辻進雄) (1994). Op. cit., p.86.
- 14) Ibid., pp.68-70.
- 15) 千村典生 (2002). *History of fashion*, 平凡社 pp.149-150
- 16) Kazuko Sato, Raymond Meier (1999). Op. cit., p.66.
- 17) Nicholas Callaway (1999). *Issey miyake, photographs by irving penn*, Brown & Company, p.21.
- 18) 야나기다세이잔(柳田聖山), 한보광 譯(1995). Op. cit., pp.41.
- 19) Ibid., pp.156-158.
- 20) Flash, 제46호, 1999.6. 패션디자인 연구 센터, p.4.
- 21) 조정미, 김예형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쯤(zen)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0(6), pp.12-13.
- 22) 동도복식문화연구재단 (1994) *モードのジャパニスム* pp.155-156.
- 23) N. 하르트만 著, 전원배 譯 (1971). *美學* p.153.
- 24) 야나기다세이잔(柳田聖山), 한보광 譯(1995). Op. cit., pp.41.
- 25) 今道友信. 著, 白旗洙 譯 (1981). *日本人의 美意識*. 서울: 교학연구사, pp.199-203.
- 26) Valerie Steele (1991). *Women of Fashion*. Rizzoli, pp.83-87.